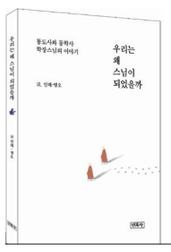
깨달음의 길 보여주는 두 스님의 출가 이야기


도량 마당을 쓸고 있는 인해 스님.


먼저 출가한 두 언니스님들과 함께. 좌측이 명오 스님.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인해 · 명오 스님 지음
민족사 / 1만7천5백원

인해 · 명오 스님 출가이야기 책으로
출가 의미 · 과정 · 수행자의 삶 담아
고민 · 성장 · 수행서 발견한 행복 그려
절에서 준 비빔밥 · 빵 과자, 출가로
두 언니도 출가 "출가, 감동 도가니"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 이 고통과 근심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최상의 진리를 얻기 전엔 결코 나를 키워주신 마하빠자빠띠와 아내 야소다라를 찾지 않으리라." 붓다는 그렇게 시작된다. 출가에서 시작된다. 출가는 자신을 찾고, 나아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수행의 길이다. 선택받은 이들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용기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열린 길이다. 하지만 그 길을 쉽게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책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는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인 인해 스님과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인 명오 스님의 출가이야기다. 한 권의 책이지만 두 권의 책이다. 책은 두 스님의 출가이야기를 통해 출가의 의미와 과정, 그리고 수행자의 삶을 담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한다. 출가자의 진솔한 고민과 성장,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수행 속에서 발견한 행복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출가는 가족관계의 변화의 시작이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딸에서, 부모가 지어준 이름과 부모가 준 삶에서 벗어나, 자신이 선택한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집을 떠나 진리를 찾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수행자의 마음가짐과 출가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특히 두 스님의 솔직한 고백은 출가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을 해소하고,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

책은 단순히 종교적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을 찾는 두 스님의 이야기이다. 수행자의 삶을 통해 발견한 자유와 행복, 그리고 세상에 대한 헌신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는 모든 대중에게 열린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는 '출가' 안내서다.

인해 스님 "빵 맛 이끌려 절집 인연"

"출가는 단순히 머리를 깎고 사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선택의 과정이며, 나아가 모든 중생을 위한 깨달음의 길을 여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번뇌와 미혹에서 벗어나 '나는 누구인가'를 간절히 찾는 길입니다. 출가의 길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참된 수행의 여정입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찾아 나서듯, 망설임 없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출가의 본질입니다."

인해 스님에게 불교에 대한 처음 기억은 부처님오신날 큰누나와 함께 갔던 집 근처 작은 절, 그리고 그곳에서 먹었던 비빔밥이다. 스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당시 고등학생이던 큰누나는 마산 정법사 불교학생회 회원이었다. 스님은 가끔 큰누나를 따라 정법사에 갔다. 간식으로 빵과 과자를 먹을 수 있었다. 빵은 비빔밥보다 훨씬 맛있었다. 스님은 빵 맛을 알고 난 후부터 머리에서 정법사가 떠나지 않았다. 절에 가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 그렇게 스님은 소박하고도 단순한 인연으로 불교와 만났다. 스님은 "어쩌면 그 시절의 어렴풋한 그 기억들이 승복을 입고 있는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출가자의 삶을 사는 내내 단 한 번도 자신이 입은 옷이 불편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중생제도를 발원하며 출가를 다짐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국경을 넘어 전법을 생각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인연'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스님은 누구나 자신의 인연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고 '참된 나'를 찾을 것을 기원한다.

명오 스님 "어릴 적 장래희망 '스님'"

"출가 생활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절은 상상 이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고, 스님들은 멋스러웠다. 출가 수행자의 본(本)이 되어준 많은 스님이 그랬다. 속가를 떠나온 나를 구속할 사람은 누구도 없고, 나 자신과 대면할수록 성장하는 나를 느꼈다. 자유와 행복, 출가의 백미이다. 참 좋다. 수행법은 다양하고, 내가 선택해서 잘하든 못하든 묵묵히 가면 된다.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불법에서는 모두 다 공부 아닌 것이 없다. 손해가 미덕이고, 가난이 공부의 살림살이가 되는 것이 출가 수행자의 삶이다."

명오 스님의 출가의 시작은 스님 위로 있는 언니 셋 중 두 언니의 출가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의 어릴 적 장래희망이 '스님'이었고, 출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연이었다. 스님은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발심으로 이겨냈고, 자유로운 출가 수행자의 삶을 선택했다.

스님에게는 언니 셋과 귀한 남동생이 하나 있다. 대를 이을 아들이 막내였지만, 부모님은 딸들에게 경상도에서 그 흔한 '가시나'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딸바보'였다. 작은 말썽 하나 없이 평범하고 바르게 자란 스님 자매는 큰언니를 시작으로 하나 둘 출가했다.

큰언니의 출가는 엄마의 고된 삶이 계기였다. 고단한 여자의 삶을 지켜보는 동안 '출가'가 움텄다. 큰언니는 엄마의 고된 시집살이를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일찌감치 책으로 부처님을 만났다. 아들을 보지 못해 시집살이를 하던 엄마가 드디어 막내로 아들을 보았다. 3년 뒤 17살의 큰언니는 설날 전, 책상 서랍에 편지 한 장을 남기고 입산했다. 혜송 스님, 큰언니가 혜송이란 이름을 받고 난 후 반전이 일어났다. 스님의 가족은 물론 친척, 동네 사람들까지 '불자'가 되었다.

명오 스님이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사건이 또 일어났다. 셋째 언니의 출가였다. 고등학교 졸업여행을 간다고 나선 언니는 대학교 입학식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셋째 언니는 떠나기 전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천수경을 독송했다. 셋째 언니의 출가 발심은 급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막내딸이던 명오 스님은 23살이 된 어느 봄날에 숨겨져 있던 '출가'의 마음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고 한다. 세속의 인연도 소중한 것이라 '부모님 곁'도 지켜보리라 애를 써보기도 했지만 안 되는 일이었다.

"스물네 살의 청춘, 그 좋은 나이에 출가했다.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나의 발심이 이겼다. 출가하여 이 길을 가고 있는 내가 참 고맙다. 〈중략〉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오롯이 나일 수 있는 길, 출가다."

철학적 선학, '선의 정체성' 철학적 확인 작업



철학적 선학
신오현 지음
파라아카데미 / 2만5천원

고 신오현(1938~2021) 교수의 논문 7편을 묶은 〈철학적 선학〉이 출간됐다. 신 교수는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및 동 대학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계명대학교와 경북대학교 철학과 및 미국 뉴욕주립대 등에서 40여 년간 철학 강의를 했다.

이번 책에서 주목할 것은 앞부분에 실린 세 편의 논문, '선·불학의 철학적 본성: 선험-현상학적 해명' '선·불학과 21세기철학' '반본환원과 선학의 현관: 신험현상학적 환원과의 유비적 해명'이다. 이 세 편의 논문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철학적 선학'이다.

그렇다면 철학적 선학은 어떻게 가능하며 그것의 철학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위 세 편의 논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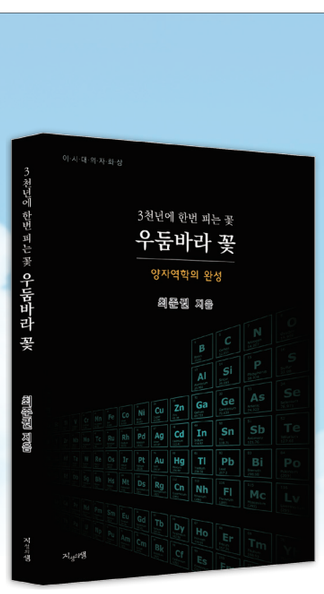
"결국 '선에 대한 철학적 연구' 즉 철학적 선학은 '선의 정체성'을 철학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다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철학의 정체성'을 선학적으로 확인하는 작업과 상호동반적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일 수밖에 없겠다."

논문을 보면, 동양의 불학이 플라톤 이래 서양철학이 그토록 추구해온 보편적 철학이념과 그 근원에서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서양철학이 20세기에 이르러서야 겨우 발견한 그 철학이념(선험현상학)이 놀랍게도 중국의 중세 선·불학에서 일찌감치 완성됐다는 것, 그리고 엄연한 사실은 세계적 차원에서 '철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담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학문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학문으로서 철학의 정체성 문제를 역사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가볍게 외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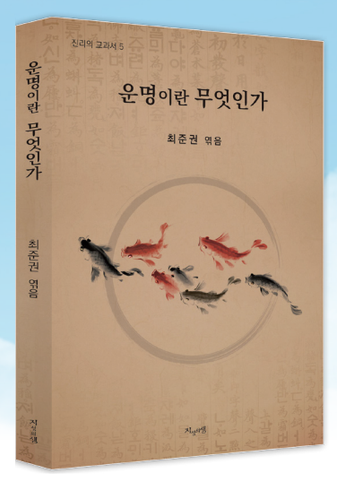
철학적 선학이 이 책에 실린 모든 글의 주제는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현상학 혹은 현상학적 방법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논문은 궁극적으로 철학적 선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책 〈철학적 선학〉은 신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뜻을 모아 유가족의 허락을 얻어 만들었다.

박재완 기자



3천년에 한번 피는 꽃
우둠바라꽃/양자역학의 완성
이 세상은 그물망처럼 심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 과학자들이 과거 100년 이상을 풀지 못한 양자의 중첩과 얽힘 현상을 어떻게 간단명료하게 풀 수 있었을까
최준권 지음/신국판/무선/272쪽/값16,000원



자아를 되찾고 자신을 구하는 삶의 길
운명이란 무엇인가
세상은 물레방아처럼 반복해서 돌며 변화를 통해 윤회하고 있다. 넓은 눈으로 창조와 진화를 관찰하면 이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준권 엮음/신국판/무선/264쪽/값16,000원



부처님의 말씀으로 엮은 깨달음의 세계
석가의 가르침
3천년 전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인 극락에서 머무시던 부처님의 영혼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받아 왕자로 태어나셨다.
최준권 엮음/ 신국판/무선/256쪽 / 값16,000원

지성의샘 / 서울 중구 을지로14길 16-11 / TEL. 02-2285-0711 / FAX. 02-338-2722 / 이메일 gonggamsa@hanmail.net